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끝〉

경봉 스님(4)

서옹, 눈앞의 금덩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경봉, 이 방석이 금덩이와 같은가, 다른가?

서옹(西翁, 1912~2003) 스님의 제자인 영흥 스님(진천 불뢰굴)이 통도사 극락암 경봉(鏡峰, 1892~1982) 조실스님을 뵙고 큰절 세 번 올리고 여쭈었다.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큰스님께서는 어찌 하겠습니까?"

순간 경봉 스님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눈앞에 내밀며,

"이 방석이 금덩어리와 같은가? 다른가?"

하고 되물었다.

"같고 다르고 간에 눈앞의 금덩어리를 정녕 어찌하겠습니까?"

"그대는 정녕 어찌하겠는고?"

영흥 스님이 얼른 방석을 잡아 높이 들어 보이고 깔고 앉았다.

그러자 경봉 스님 특유의 호쾌한 웃음을 터트리면서 말했다.

"역시, 사자새끼로구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화두 제시

"해와 달을 띄워 온 시방(十方)을 행복케 하고 꽃과 열매를 뿌려 온 시방을 태평케 합니다."

영흥 스님이 큰절 세 번 올리고 물러나왔다.

승조 법사는 "부딪치는 매사가 모두 진실한 것이다(觸事而眞)"라고 하였고, 마조 선사는 "서 있는 곳이 곧 진리이다(入處卽眞)"라고 하였다. 또한 석두 선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도를 만난다(觸目會道)"고 하였으며, 도오 선사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 그대로가 모두 깨달음이다(觸目菩提)"라고 하였다.

이처럼 꿈에서 깨어난 조사들은 한결 같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이자 부처요 깨달음이자 마음이라 설했다. 하지만, 이를 투철하게 믿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직도 선법문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영흥 스님은 '눈앞의 금덩어리'를 화제로 거량을 시작하고 있다. 이 '눈앞의 금덩어리'란 말은 '눈앞의 부처이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이 눈앞의 금덩어리에는 TV도 해당될 수 있고, 컴퓨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눈앞의 진실을 깨달아 많은 선객들을 제접해 온 경봉 스님은 노련하게 눈앞에 있는 방석을 들고서, 이것이 금덩어리와 같은가를 되묻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와 방석, TV와 컴퓨터는 분명히 사물로서는 같은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일체를 마음으로 보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의 도리에서는 다른 물건이 아니다. 뜰앞의 잣나무도 부처요, 금덩어리도 부처요, 방석도 부처다.

그러나 금덩어리와 방석이 같다고만 해도 미친놈이고, 다르다고 해도 선리(禪理)에 눈을 뜨지 못한 멍청이가 되고 만다. 같다고 해도 틀리고, 다르다고 해도 틀린다(不一不二). 그래서 영흥 스님은 "같고 다르고 간에 눈앞의 금덩어리를 정녕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예봉을 비켜가는 동시에 재차 반격을 가한다.

일체를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그대는 정녕 어찌 하겠는고?" 하고 묻자, 영흥 스님은 방석을 든 다음 깔고 앉는 행위로 답을 대신한다.

방석은 그냥 깔고 앉는 물건이지, '깔고 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 법당에 금부처가 있으면 먼저 절을 하고, 주인이 방석을 내오면 깔고 앉고, 차(茶)를 내오면 마시면 된다.

눈앞의 진실이 어쩌고, 마음이 어쩌고 하는 것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어설픈 주석에 불과한 말이다. 금가루가 아무리 귀해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될 뿐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확고한 믿음·중단 없는 정진이 '밑바탕'

다양한 수행법과 '깨달음'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행하고 있는 김진여(41) 거사는 5년 전, 구미에서 직장에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많은 샐러리맨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퇴사해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오랫동안 '이 뭣고?' 화두로 참구해 온 그는 염불, 주력, 절하기 등 이런 저런 수행을 해봤지만 재미를 못 보고, 마침내 미얀마, 태국, 인도로 구도여행을 떠났다.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식 동굴수행까지 경험한 그는 결국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해 귀국했다. 다시 토굴에서 석 달을 지내다가 부산의 유명 선원에서 하안거를 마친 그는 드디어 간화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간화선을 접한 지 무려 15년만에 '이 뭣고?' 화두를 들고 꾸준히 정진하면 깨달을 것이란 자신감이 든 것이다.

이처럼 참선, 염불, 위빠사나, 간경, 사경, 절하기 등 여러 수행법을 쇼핑하듯이 경험만 하고 진득하게 한 방편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깨닫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진지함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불·법·승 삼보와 스승,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다. 특히 인터넷에 넘쳐나는 불교정보는 믿음과 실천이 부족한 알음알이 불자를 양산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법과 깨달음에 대한 회의, 수행과 보살행에 대한 머뭇거림들은 모두 사라진다.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모든 의혹들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바른 믿음의 법열(法悅)로 인해 보리의 열매가 영글게 된다.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하려는 이나, 수십 년을 참구해도 제자리걸음인 불자들은 반드시 '도(道)의 근본이자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인 믿음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보배 창고를 여는 열쇠

마음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두터운 번뇌와 욕망의 껍질을 뚫고 지혜의 새싹을 틔워서 마침내 무량한 지혜와 복덕이 수확된다. 그러니 이 믿음이야말로 무량한 보배가 가득한 보배창고인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이와 같이 무변무진한 '믿음의 창고(信藏)'를 완성하여 여래의 큰 수레를 타고 나아간다"고 하였다. 최근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과 <시크릿>이라는 자기계발서가 각각 '믿는 대로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주제로 성공의 비밀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며 지혜는 내가 밭가는 쟁기"라고 설하셨다. <화엄경>에서는 "신심은 썩지 않는 공덕의 씨앗, 위없는 보리의 나무를 싹틔우고 뛰어난 지혜의 문을 자라나게 하여 모든 부처님들을 잘 나투시게 하네"라고 하였다.

신심으로 일심 진여법계를 깨닫는다

3조 승찬 대사는 <신심명>에서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다(信心不二 不二信心)"라고 하였다.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신심은 범부에서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모두 신심뿐인 것이니, 이는 신(信)·해(解)·오(悟)·증(證)을 함께 겸한 신심이다. 신심으로써 진여법계를 깨닫는다. 신심은 불법진여의 근본으로서 그것은 들이 아니며, 모든 (대립적인) 것은 원융하여 쌍조(雙照)가 되어서 거기서는 아무 상대도 없고 무애자재만 남게 된다"고 하였다.

마명 보살은 <대승기신론>을 쓴 뜻을 "중생들의 온갖 의심 풀리게 하고 집착으로 생긴 견해 버리게 하며 참 대승의 바른 믿음 일깨워주어 부처님 씨 이어가기 바라옵기에"라고 하였다. 원효 스님은 <기신론 소별기>에서 "법과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굳은 믿음을 일으켜 대승은 오직 한마음(一心)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도록 바른 믿음을 일깨운다"라고 하였다.

본유불성을 확신해야 돈오한다

조사선의 마음공부는 우선 자심에 본유(本有)하는 불성이 부처와 본래 차이가 없는 자심즉불(自心卽佛)임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때문에 혜능 선사는 조사선이 상근인(上根人)을 위해 설한 것이며, 스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수어 없애버리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그는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한다. 그가 의심이 없도록 하면 보리가 나타날 것이다"고 하여, 의심을 제거해야 돈오 해탈할 수 있다고 했다.

팔리삼장 주석서의 통계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에 수다원과 이상 아라한과까지의 도과를 이룬 수행자는 무려 1만297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12명은 법문 즉시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말끝에 단박 깨닫는 언하대오(言下大悟)가 부처님 당시에는 더욱 흔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는 32상80종호를 구족한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면서 느끼는 절대적인 신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불법은 완전하건만 스스로 의심할 뿐

혜능 선사의 제자인 법달 화상은 <법화경>에 7년을 의지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경문에 아직도 의심이 있었다. 혜능 선사가 그에게 "경전 자체는 의심할 만한 곳이 없다. 네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심은 성불의 큰 장애인 것이다.

그래서 임제 선사는 "지금 도를 배우는 너희들은 스스로 믿을 뿐, 밖으로 향하여 구하지 말라. 학인들의 병이 어디에 있는가? 병은 스스로 믿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경책하였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자기의 비어서 소리와 빛깔이 끊어진 마음에 대하여는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는 것을 호의불신(狐疑不信)이라 한다. 이 여우 의심이 다하여 청정하면 바른 신심이 우주에 편만하여 곧게 대도(眞如一心)가 눈앞에 트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초심자 수련법회**=경주 마하보디선원은 2008년 1월 12~13일 오후 2시부터 매월 둘째 주 토·일요일 초심자 수련법회를 연다. (054)746-9750

● **일주일 철야정진**=서울 보림회는 12월 28일 오후 8시부터 2008년 1월 3일 오전 7시까지 일주일 철야정진을 한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도반이자 제자인 묵산 스님이 지도. (017)332-4096

● **방거사 어록 강설**=서울 봉은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방거사 어록 강설〉의 저자인 혜담지상 스님을 초청, '방거사의 선어록 강좌'를 연다. (02)511-6070

● **선문염송 강의**=부산 무심선원은 매주 수 오전 11~12시(입제록)와 오후 7시 30분~8시 30분(선문염송) 선어록 및 참선법회를 연다. 또 매주 토 오후 2시 30분~5시 〈원오심요〉 및 〈서장〉 강의를 연다. (051)515-7226